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5호 현대불교
2010년 5월 26일(음 4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1

이것저것 탓하다가 언제 저승가서 저승공부 하렵니까!

안팎으로 꼬달리게 됩니다

☞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팎으로 꼬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을 잡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스님,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가 '주인공' 하는 건 한 시스템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에다 맡겨라. 거기서 나오든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아픈 게 한 거니까 거기서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나오는 구멍에다 되뇌라 이겁니다. 그 래야반이 앞서 입력된 것이 다. 팔자 운명이 다 무너지고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업보가 무너지고 화산지옥이 무너지고 화탕지옥이 무너지고, 모두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어떤 노래를 카세트에 넣었다가 거기 또 다른 노래를 넣으니까 앞서 노래한 것이 지워지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이해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는 데 이해가 가야만 되겠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의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때를 맞춰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대로 거기에 꼬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꼬달리지 말고,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맡겨 놔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놓을 때에 앞서 입력했던 게 없어 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로 입력을 해 넣으니까 새로 새 살림 하듯이, 내 머리가 깨운하게 맑아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10억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뒤범벅이 돼서 풀리지 않고 순서껏 돌아가면서 잔잔하게 물이 흐르듯이 돌아가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내 몸이 건강해지며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내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는 돈도 달아나다가 '아이구, 요 집은 화목한데!' 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돈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마음들을 한데 규합해서 돌아가게끔 한다면, 그 모든 게 무너지면서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허공을 밟겠습니까, 형상을 밟겠습니까, 이름을 밟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보더라도 내 형상과 돌이 아니요,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과 돌이 아니요, 그 마음내는 것도 내 마음내는 거나 돌이 아니니 그



그림 · 최주현

거를 돌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위로도 보지 말고 아래로도 보지 말고 똑같이, 남이 아픈 거를 내가 아픈 듯이 돌이 아니게 모든 것을 본다면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사랑 입으로만 외우지 그런 입에 붙은 밥알처럼 그렇게 사랑 사랑 하질 마시고 진짜 행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으로는 세 살 먹은 애도 다 부처님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건 팔십을 먹어도 행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그튼가요? 열 마디 백 마디 좋은 말을 하는 거보다 한 번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살아서 진정 한번 죽어 보고 싶어요

☞ 저는 의협심이 많다고 해야 할지, 아닌 줄은

못 봐 주고 하는 일마다 이러니 저러니 이유가 많은 성격이라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죽는다는 게 한참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서 진정 한번 나라는 것을 죽여 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 우리네 인생은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한 번은, 그러니 이왕 죽을 거라면 죽든 말든 아예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버리고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습니다. 그냥 찰나 찰나 우리가 여기 발 디며 놓고 떼어 놓는 거와 같아요. 하나하나 없어지고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이거 보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 보면 저거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없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없어지고 이거 먹으면 저거 없어지

고, 이렇게 모두가 죄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거를 왜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긴 사람을 보면 길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짧은 사람을 보면 짧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둥근 사람을 보면 둥글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라고 말입니다. 정말 누구 말따나 접시가 종지라고 우기더라도 "아이, 종지가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이론이 그렇게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틀리다 어쩐다 이런 이론을 거기다 붙이면 진짜 공부 못해요.

여러분은 똥 누러 가는 데도 이유가 붙고 배고파서 밥 먹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주무시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그렇진 않겠어요? 졸리니까 그냥 잘 뿐이지, 그렇게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 나가는 데에 말입니다. 이유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오고 감이 없이 말입니다. 힘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이유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뭐 사는데 뭐 저거 하면 거기 이유가 꼭 붙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창살을 넘나들지 못하는 이유죠.

만약에 누가 틀리면 전자에 그렇게 틀렸을 때 내 모습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아이, 내가 전자의 모자랄 때 모습이었구나!' 하고 마음을 쓰면 공부도 좀 유순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 보면 하나 꼬집고 둘 보면 둘 꼬집고 이렇게 하니, 아니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찰나에 들어가는 이런 공분데 그냥 이것 말고 저것 탓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언제 저승에 들어가서 저승 공부를 하렵니까? 살아서 열반을 못한다면 죽어서도 열반이 아니 되죠. 경전을 통해서 통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성해탈이라야 그게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롭고요. 열심히 해 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돌아갈 일 같아요. 몇 명 안되지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어이없는 질문이었지만 돈 좀 벌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 이 돈이 팔이요, 돈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게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죠? 이론 하나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움직거리요, 이것도,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걸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거기서 나를 형성시켰고, 거기서만이 지금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내가 앞다려져도 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열치열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분하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마음을 넓게 쓰고 돌아가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돈도 슬그머니 나를 쫓아와요. 내가 따라가면 자꾸 도망가고, 내가 같이 한마음이 돼 주면 그냥그냥, 그 돈이 아주 따뜻한 데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사람도 따뜻

☞ 22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열역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 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계, 가영, 향수나열, 도랑계, 대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 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문 의

☎ 051)727-0859, 0809 / 010-3004-0859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 1억원 대출시 월이자는 62만원입니다!

▶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영산새마을금고는 30년 전통과 (설립일 1980.01.26) 우수 새마을금고 내부부장관 표창(제 4856호) 등 여러차례 수상경력이 있는 사찰대출 전문 새마을금고입니다.

▶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않나요?

대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하여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변동금리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음대로 갚을 수 있나요?

조금씩 갚으셔도 되고 갚은 만큼 다시 빌릴 수도 있으며 특히 대출금을 갚을실때 위약금이 없습니다.

▶ 대출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나요?

법원등기비용과 3억이상 대출시 공인감정료 이외엔 출장비, 대출수수료, 격기등의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대출지역 : 전국
 대출형태 : 담보대출
 대출금액 : 3천만 이상
 대출금리 : 연 7.2%~7.6%
 대출기간 : 3.5년(연장가능)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의 새이름-
영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 주 법 달
주 지 정 문
총 무 현 담
재 무 정 여
신도회장 김경희

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